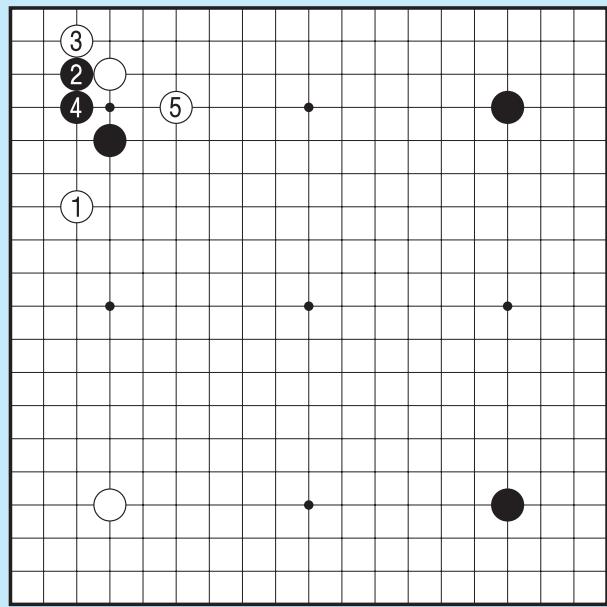


김만수의 어려운 것을 정해주는 남자



장면도1

“김 사범 안녕하세요. 제가 순천에 사는데 정말 미치고,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. 내 고민 좀 해결해주소.”

순천에서 오신 김 사장님,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초등학교 동창인 라이벌과 저녁 내기 한판에 소주 한잔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낙이라고 하시는군요.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. 한 달 전, 친구분께서 요상한 수법 하나를 배워 와서 김 사장님에게 사용하는데요, 번번이 이 수법에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. 매번 저녁 값을 내는

바람에 사모님한테 바가지를 긁혀서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하는데요, 이번 달에는 불면증의 원인인 장면도1 백5의 수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.

1도

먼저 그동안 김 사장님의 두었던 응수부터 알아볼까요? 김 사장님의 가장 많이 두었던 응수는 흑1입니다. 흑5까지 쭈욱 민 다음, 흑9로 공격하는 수를 많이 두셨답니다.

2도

그러나 백1·3이 좋은 수법이어서, 백9까지 결과를 보면 흑이 약한 돌이 2개이고, 상변에 백 집도 제법 클립니다. 흑은 어떤 수를 잘 못 둘걸까요?

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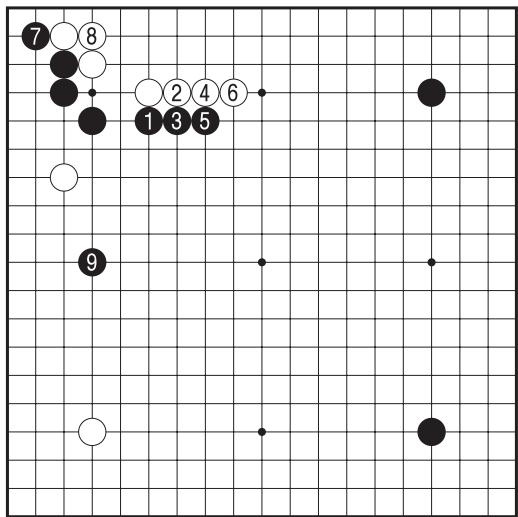
흑1 이하 5까지 밀어간 수가 대악수예요. 바둑에서 상대를 밀어주는 행마는 가장 나쁜 행마입니다. 왜냐고요? 흑은 공배만 두는데 백은 상대가 밀 때마다 3집씩 늘어나기 때문이지요. 상대에게 집을 벌어주는 밀어주기 행마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해요~

4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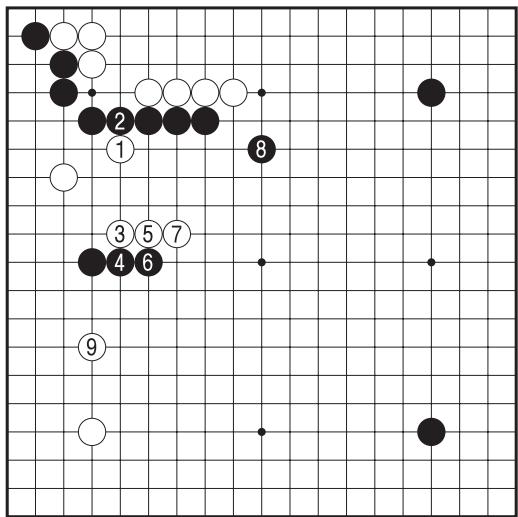
게다가, 흑1로 붙었을 때, 백2·4로 두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. 백8까지 흑이 양곤마로 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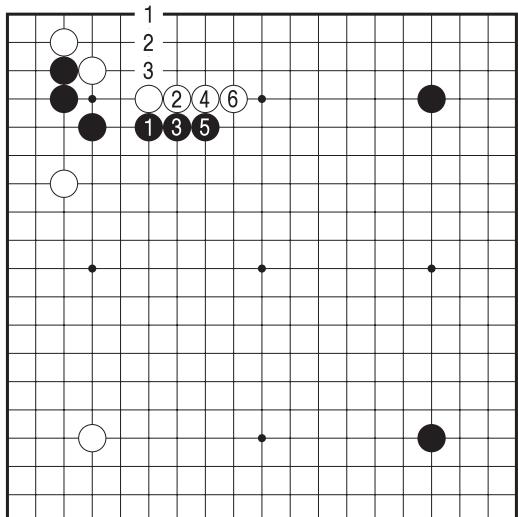
바둑을 두다보면 매번 머리가 지끈거리는 어려운
장면이나 애매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.
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해도
알쏭달쏭한 어려운 장면들.
어정남 김만수가 확실히 정해드립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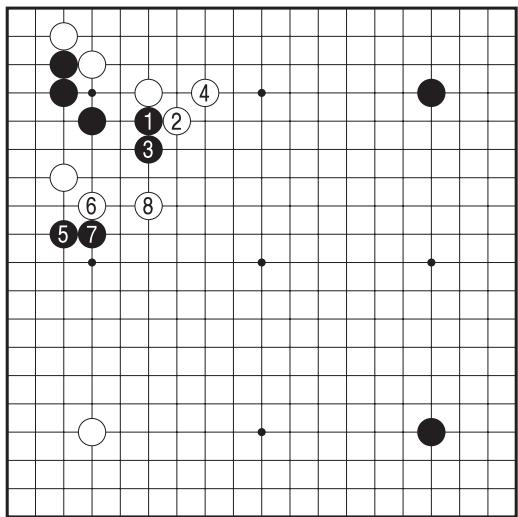
1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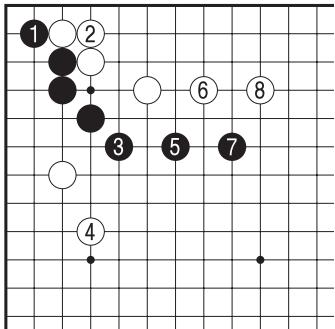
2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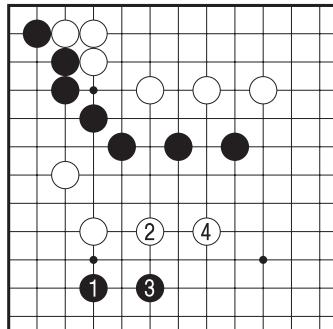
3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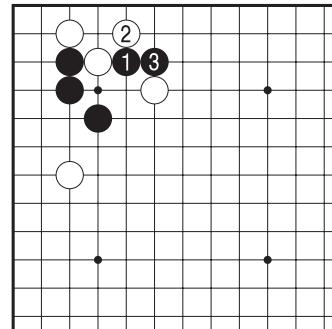
4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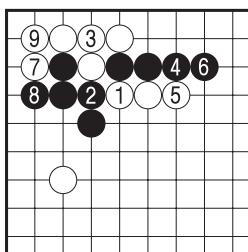
5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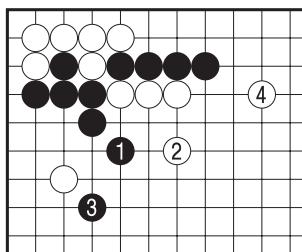
6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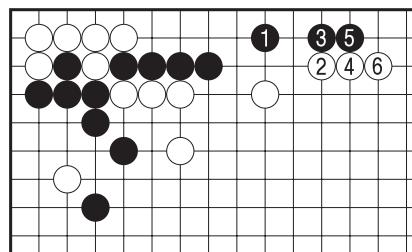
7도



8도



9도



10도

려 곤경에 처하게 되죠. 아래서는 곤란하겠죠?

5도

김 사장님이 두 번째로 많이 둔 응수를 볼까요? 이번에는 흑1로 두어 귀의 실리를 차지한 이후 흑3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백4로 두니까, 흑5·7로 또 손해를 보게 되네요. 흑은 공배, 백은 집이 쑥쑥 늘어납니다.

6도

흑1로 공격을 갔지만, 백2·4로 뛰자 귀의 흑돌 역시 함께 쫓기게 됐습니다. 누가 누굴 공격하는 건지. 김 사장님, 이런 식으로는 결코 친구에게 저녁 내기에서 승리할 수 없답니다.

7도

자신의 응수가 번번이 막히자, 김 사장님은 좀 더 센 바둑친구에게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. 그 친구에게 흑1·3의 날일자 건너 붙임 맥을 배운 다음날, 자신 있게 흑1·3에 붙였습니다.

8도

그러나 흑1·3을 본 친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노타임으로 백9까지 주르륵 뛰옵니다. 뭔가 불길한 기운이 김 사장님 뇌리를 스치는데요….

9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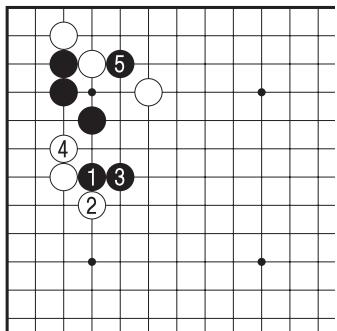
흑1로 마늘모 했지만 백2·4의 공격이 강력합니다. 김 사장님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흑넉점의 활로를 찾아도, 좀처럼 사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.

10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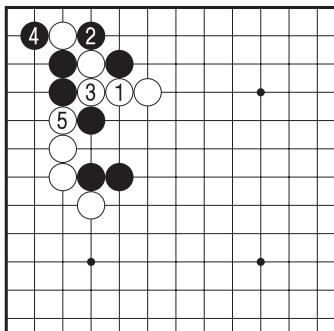
흑1·3 2선으로 기고 기어 겨우 살았습니다만, 백4·6으로 계속 늘자 초반부터 2선을 몇 번 기는 건지… 고수라는 친구가 가르쳐준 비장의 무기도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.

11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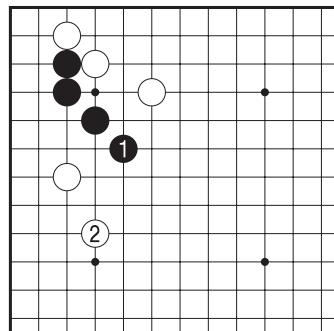
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김 사장님, 혼자서 연구에 푹 빠졌습니다. 연구 결과 마침내 흑1·3에 두고 흑5에 붙이는 필살기를 연구해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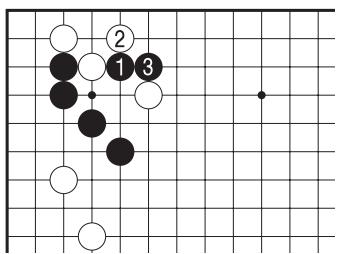
11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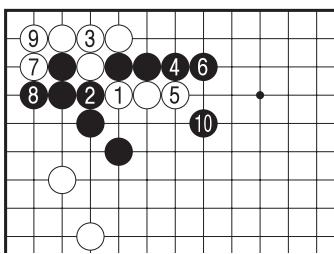
12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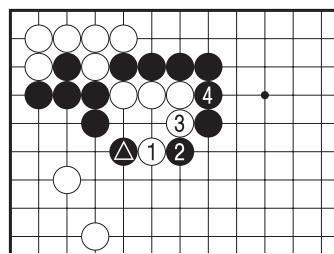
13도



14도



15도



16도

습니다.

12도

그리고 결행!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이번엔 백1 위로 막고 5까지 허리가 동강 끊기고 나니, 역시 불리한 전투로 짤짤매다 결국 불계패… 김 사장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시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어정남을 쳐다봅니다.

“김 사범, 도대체 어떻게 두어야 하는 거요? 어딜 둬도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 애매해요. 자, 애매한 것 좀 정리해 주소.” 여러분~ 이제 백의 잘못을 응징하는 수를 알아볼까요!

13도

정답은 흑1의 마늘모입니다. 이 수를 보자 김 사장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. “엥? 이건 내가 두었던 수 아닌가? 백2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?”

14도

바로 여기서 흑1·3이 급소! 실은 김 사장님의 고수 친구가 가르쳐준 수는 나쁘지 않았습니

다. 다만, 중요한 수순 하나를 빠뜨리는 바람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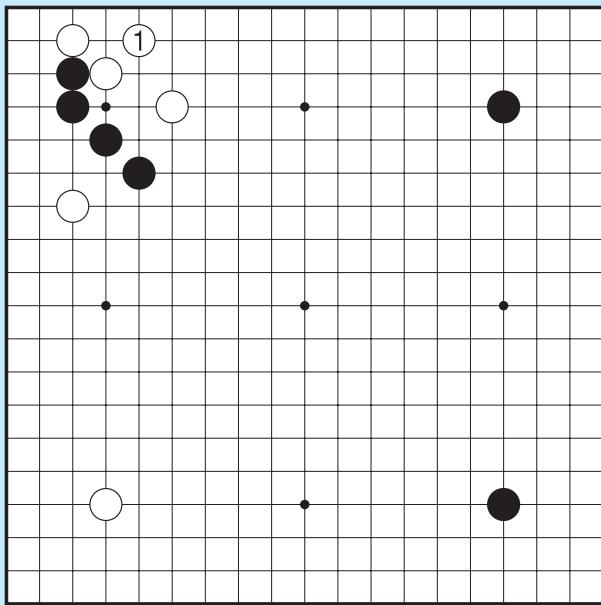
15도

백1로 끊은 이후 백9까지는 똑같습니다. 자, 이때! 백돌을 둘로 가르고 있는 백 석점을 한방에 잡는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수인지 아셨나요? 바로 흑10. 이 한수로 백은 땅을 치며 요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.

16도

백1로 나가도 흑2·4의 냉정 침착한 호수. 어때요? 백 요석이 잡혔죠? 흑△가 기가 막힌 급소에 와있어요. 왜 중간에 마늘도 수순이 필요했는지 알겠죠?

흑의 응징 수법을 배워간 2주일 후, 김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. 목소리가 너무 밝아졌습니다. 요즘은 저녁 얻어먹는 재미로 사신다 나요~



장면도2

어느 날, 김 사장님의 또 분당 바둑센터에 찾 아왔습니다. 다시 예전처럼 얼굴색이 나빠진 채로 말이죠. 왜 그러신지 물어보니까, 요즘 친구 가 응수를 바꿔 백1로 지킨 이후 다시 승률이 나빠졌다고 하시네요. 백1은 어떤 수일까요?

1도

먼저 김 사장님의 실전보를 보겠습니다. 김 사장님은 흑1로 공격 가는 수를 선택했고, 이후 백8까지 진행이 이어진다고 합니다. 이 진행은 어떨까요? 장면도1에서 수차례 나왔었던 흑의 나쁜 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흑은 양곤마로 몰려 다시금 하루 종일 쫓겨 다녀야할 운명에 처한 것이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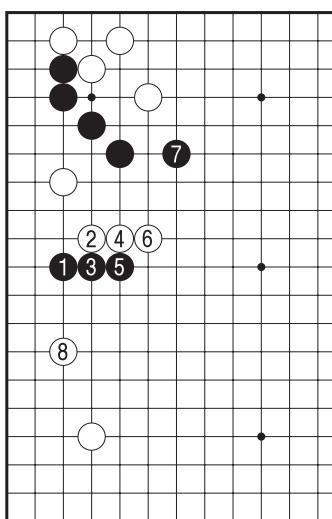
2도

위의 변화가 여의치 않자 김 사장님은 이번엔 1로 한칸 뛰어 응수합니다. 백2 이후 흑3으로 밀어주고… 그런데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? 또다시 밀어주기란 금기를 범하고 있죠? 그래서 선 다시 친구의 저녁밥으로 전락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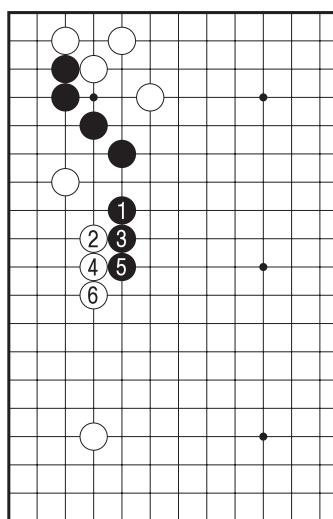
만다고요!

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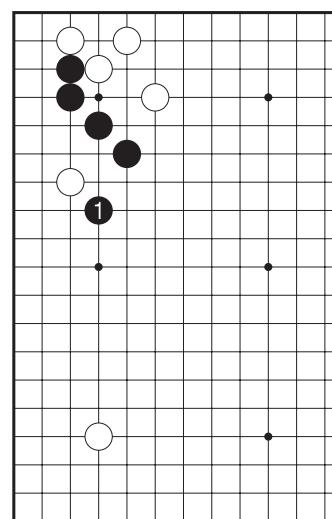
자~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. 흑1로 씌워가는 것이 좋은 수. 백 한점을 공격하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급소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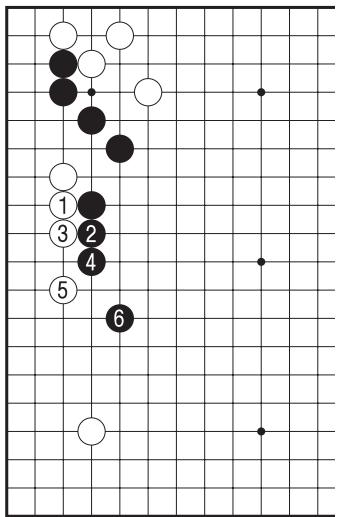
1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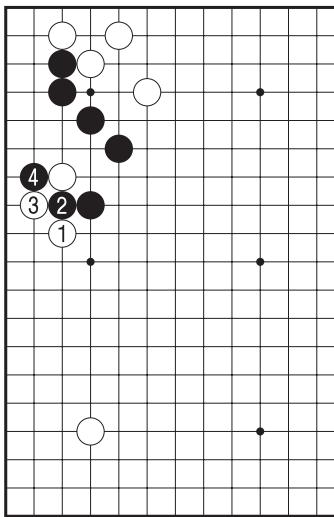
2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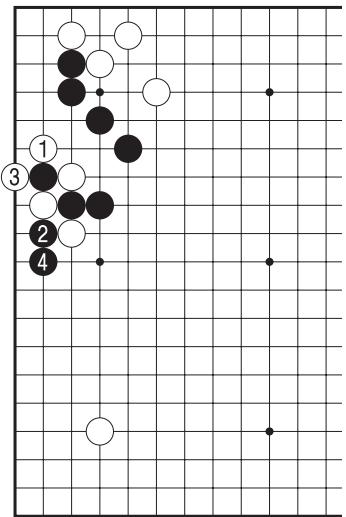
3도



4도



5도



6도

4도

백1로 나가면 흑2로 들어듭니다. 3으로 밀면 4로 또 들어줍니다. 자~ 이번엔 반대로 백이 밀고 있죠? 흑6까지 흑의 세력이 돋보이는 모양이에요.

5도

따라서 백도 1로 한칸 뛰는 게 정수입니다. 이 때, 흑2·4로 강력하게 끊어가는 게 수순! 여기서 끊는 방향에 유의하세요. 행여 반대로 끊으면 큰일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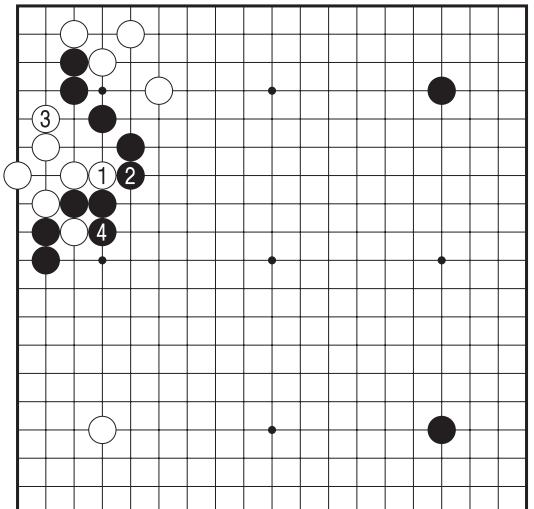
6도

백1로 흑이 던진 미끼를 무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. 흑4로 들어두면, 간힌 백돌이 죽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답니다.

7도

백1·3이 유일한 백의 할로. 그러나 흑4로 백 한 점을 제압하면 겨우 2집 내고 산 백에 비해 흑 세력이 웅장합니다.

상대가 모르는 수를 들고 나왔을 때, 무턱대고 상대를 공격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



7도

있습니다. 먼저 나의 돌을 지켜둔 다음, 상대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해요.

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‘아생연후살타’라는 격언의 의미랍니다. 나의 돌을 안정시킨 다음 상대를 공격하라. 꼭 기억해 두세요!

그럼 여러분, 다음 달에 만나요~!